

| 화제의 인물 |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표창



정 시 유

서울메트로 보건관리자

시원한 개울과 갑작스런 장대비가 한 여름을 절로 느끼게 한다.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에서 소녀가 징검다리를 건너는 모습이 생각나게 하는 'see you again'이라는 애칭을 가진 정시유 보건관리자(서울메트로)를 소개하고자 한다.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만3년을 근무하다 상담에 관심을 두고 시작하게 된 사업장과의 인연이 2007년 산업전문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했고, 2005년 시작한 금연사업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까지 표창하게 했다고 겸손하게 말을 이어가시는 정시유 선생님!

정시유 선생님은 산업간호가 건강증진사업으로 흘러가야 한다고 보며, 날로 늘어나는 보건업무에 반해 한정된 보건관리 인력과 사업장의 대행기관 선호가 산업간호와 보건관리의 문제점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산업간호사 스스로 외부자원과 연계할 수 있는 안목과 기술을 키우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간호의 영역을 넓히고 굳건히 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배경지식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산업간호 및 보건관리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하며 산업간호사들에게 사업장은 기다림과 열정을 갖춘 끈기가 필요한 곳임을 인지하고, 행정업무에 대한 자신감, 외부자원 연계 및 정보력과 인간관계 능력을 키울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녀는 사업장에서 일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참여자의 참석률 저조와 최고경영자 및 관리자의 인식부족을 얘기한다. 더 이상 사내 의무실이 아픈 사람들이 다니는 곳으로만 인식되는 것에서 탈피하여 의무실 문을 개방하고 근로자와 가까워지는 보건관리자가 되고자 했다. 사업장은 자신의 역량 하에 업무가 추진되고 또한 그 업무에 책임을 져야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곳이라며, 산업간호는 독자적이며 책임이 따르는 분야라고 말하고 있다. 혹여 임상의 교대근무가 싫어 산업간호사를 꿈꾸는 예비 산업간호사가 있다면 분명히 임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사업장과 근로자에 대한 애착이 없이는 산업간호사가 된다는 것이 외로운 일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자 했다.

2005년부터 시작한 금연사업이 좋은 결과를 얻어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상을 표창하게 된 데에도 사업장과 연계기관에서 그녀에게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잊지 않았다. 앞으로 그녀가 바라는 것은 간호에 필요한 건강상담, 건강증진사업 등과 연결 지어 기업복지와 관련한 수익사업(예. 기업이미지간호 마케팅 전략)을 창출하고, 사업장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부부클리닉, 한방간호를 접목한 총체적인 간호를 해보는 것이라고 했다.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산업간호사로서의 역할을 다해가는 정시유 보건관리자에게 박수를 보낸다.